

광주·전남 수시경쟁률 소폭 상승… 보건계열 ‘인기’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평균경쟁률 전남대 6.55대 1·조선대 4.93대 1 기록

호남대 보건·통신대 한의예·광주대 응급구조 ‘최고’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들의 2026학년 수시 평균경쟁률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대학들이 12일 2026학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대학교는 3977명 모집에 2만5055명이 지원해 평균 6.30대 1(정원내 6.55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6.31대 1)와 비슷한 수준이다.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교과(일반) 전형은 6.68대 1(지난해 6.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해당 전형 최고 경쟁률은 가정교육과로 19.67대 1이다.

학생부교과(지역인재) 전형은 6.42대 1(지난해 7.10대 1)로, 모집단위 최고 경쟁률은 문화인류고고학과(22.50대 1)이다.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I) 전형 최고 경쟁률은 수의예과로 24.13대 1이다. 의학과 학생부교과(지역인재) 전형은 5.46대 1,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I) 전형은 16.10대 1이다.

전남대는 오는 9월26일과 11월25일 실기고사, 12월2일 학생부교과전형 면접, 12월3일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진행한다.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는 12월12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는 4629명 모집에 2만2830명이 지원해 4.93대 1(정원내 5.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도 경쟁률 4.67대 1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0.26%p 상승했고 지원자 수는 1471명이 늘었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일반전형) 5.09대 1,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5.24대 1, 학생부종합(면접전형) 9.83대 1, 학생부종합(서류전형) 4.50대 1, 실기·실적(실기전형) 3.88대 1이다.

의학계열의 경우 학생부교과(일반전형)에서 의예과 13.71대 1, 치의예과 14.86대 1, 약학과 14.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에서는 의예과 6.82대 1, 치의예과 8.12대 1, 약학과 7.68대 1을 기록했다.

전형별 모집단위별 상위 경쟁률은 학생부교과(일반전형)에서는 간호학과와 경찰행정학과가, 학생부종합(면접전형)에서는 경찰행정학과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실기·실적(실기전형)에서는 문예창작학과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호남대학교는 1574명 모집에 7386명이 지원해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물리치료학과 11.5대 1, 뷰티미용학과

7.67대 1, 치위생학과 7.13대 1, 임상병리학과 6.94대 1, 반려동물산업학과 6.82대 1, 간호학과 6.75대 1로 보건계열 학과가 강세를 보였다.

통신대는 1420명 모집에 590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2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3.53대 1에 비해 12.44% 상승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한의예과로, 8명 모집에 221명이 지원해 27.6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의예과 지역학생2전형은 15.7대 1, 지역학생1전형 9.81대 1, 지역기회균형전형 9.5대 1로 집계됐다.

일반전형의 경우 뷰티미용학과 14.63대 1, 군사학과 11.50대 1, 방사선학과 8.82대 1, 반려동물학과 7.62대 1, 간호학과 7.61대 1, 응급구조학과 6.95대 1, 물리치료학과 6.75대 1, 사회복지학과 5.10대 1, 소방안전학과 4.95대 1 등의 순이었다.

광주대학교는 최근 7년 내 가장 높은 평균 5.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6개 학부(과) 정원 1358명(정원내 1286명·정원의외 72명) 모집에 총 7246명이 지원했다.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일반학생전형 5.79대 1, 지역학생전형 4.86대 1, 실기 70%를 반영하는 실기일반전형 3.03대 1이다.

학생부교과(일반학생) 학부(과) 별 경쟁률은 응급구조학과 12.18대 1, 간호학과 8.49대 1, 뷰티미용학과 8.28대 1, 호텔조리제과제빵학과 8.13대 1 등이다. 실기일반전형 문예창작과는 9.33대 1이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갯벌 체험하는 어린이들 휴일을 맞아 14일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열린 황토갯벌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갯벌에서 조개잡기 체험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한국관광공사 트래블리더 팸투어 동행취재

대학생들의 현장 평가…“광주 동구 매력 가득”

“광주 동구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또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매력이 가득합니다.”

12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충장로우체국, 광주 동구,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트래블리더 팸투어’에 참여한 전국 대학생 8명이 도착하자 해설가의 설명이 시작됐다. 충장로 우체국, 금남로 공원, 금은 나와라 폭파 도깨비 골목(충장로5가)에 대한 내용이다.

트래블리더들은 도로 유래가 담긴 안내문을 읽으며 레트로의 감성에 빠져들었다. 이들은 ‘전병원양복점’에서 호남 최초로 패션디자인 분야 대한민국명장(586호)에 오른 전병원 명장을 만났다. 이후 연도별 양복, 미싱기, 다리미, 전화기, 뼈뺌 등을 관람했다.

1935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들은 일제강점기 영화 검열을 위해 마련된 경찰 전용석인 ‘임검석’, 옛 영사기, 손간판 등을 보며 또 한 번 놀라워했다. 전일빌딩245에 도착한 트래블리더는 전망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정원 ‘전일마루’에 올라 무등산과 금남로 전경을 한눈에 담았다. 이후 9~10층에 조성된 ‘1980518 메모리얼 홀’에서 계엄군의 헬



광주 동구,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2일 충장로, 금남로에서 ‘트래블리더 팸투어’를 진행했다. 사진은 트래블리더들이 여행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

광주극장·도깨비골목·전일빌딩 ‘레트로 감성’ 물씬

홍보영상 제작 예정…여행상품·스텝 투어 제안도

기 사적 흔적과 함께 5·18의 진실을 알리는 다양한 자료를 관람했다. 끝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진행된 전시를 보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다.

이날 생애 첫 광주 나들이를 마친 트래블리더들은 역사, 문화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해 인상 깊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준영씨(25·안동대 3년)는 “전남 여수·순천·광양, 전북 군산은 볼거리가 있

어 다녔지만 광주는 처음으로 방문했다”며 “촬영한 영상, 사진을(인터넷에) 올려 광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안서령씨(23·여·동아대 4년)는 “광주 하면 무등산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 지루하지 않았다”면서 “걸어서 즐기는 원도심 투어가 여행상품 또는 스텝 투어에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남구 양과동 주민들 “SRF 약취, 건강권 위협”

22일 재가동에 불안감 확산…“주민 의견 청취해야”

“약취로 참견도 못 열고 빨래도 못 말리는 게 정상입니까?”

광주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약취 문제를 논의하는 주민설명회가 지난 11~12일 오후 8시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열렸다.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해 국·과장 전원이 참석한 주민설명회에는 호전 1·2지구 공동주택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남구는 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엔씨가 지난해 3월 30억원을 들여 약취 제거를 위한 소각 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약액세정탑을 설치하면서 약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SRF를 대상으로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오염도 검사 결과에서 법적기준치(500)를 초과하는 복합약취(3000이

상)가 10회 이상 측정됐다.

그동안 포스코이엔씨는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취 유발 물질을 LNG 가스로 태웠었다. 하지만 연간 7~8억원의 비용이 들어가자 지난해 3월 환경부 등의 승인을 거쳐 약품으로 중화하는 방식(운영비 5000만원~1억원)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약취가 폭증하고, 올해 폭우까지 겹치면서 민원이 속출하자 남구는 올해 8월 포스코이엔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포스코이엔씨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남구로부터 받은 행정 처분에 따라 약취 저감 설비를 보수하거나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SRF를 재가동하는 오는 22

일 이후 상황이다. 남구는 다시 약취가 예상되는 만큼 유발 물질의 분자 연결고리를 불에 태워 끊어냈던 기존의 소각 방식으로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전 소각 방식으로 선회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고, 환경부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한 주민은 “약취로 외출은 물론이고, 밤에 잠을 못 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집 안에서조차 마스크를 쓴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김병내 청장도 “전남 공성군에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하루 5t가량)에 대한 처리 방안 등 주민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하고, SRF 주조종실 CCTV 설치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